

GRACE 선교소식

2025년 6월 GMI-GKC 선교사 현황: 62개국 318명 (자체파송 78%)

2025년도 세계선교 마무리를 향해!

GMI 총재 한기홍 목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저는 지금 텍사스 달라스 린데일에 위치한 자마 캠퍼스에서 열린 미주 자마 중보기도 컨퍼런스에 참석하여 큰 은혜를 누리며 이 편지를 씁니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미 전역 23개 교회에서 총 237명의 중보기도 사역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우리 은혜교회에서도 중보기도팀 26명이 함께 참석하여 말씀과 기도 가운데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첫날 저녁 집회와 수요일 오전 세미나를 인도하며, 성령님의 강한 임재와 감동 가운데 성령 충만한 시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계속 되는 집회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다음세대 영어권 중보기도 사역에 대해

사무엘 한 목사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말씀을 전해 주셔서, 모두가 깊은 감동과 은혜를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이후 영어권 다음세대를 위한 자마 중보기도 컨퍼런스를 열어 달라는 요청이 이어졌습니다.

또한 우리 은혜교회 중보기도 사역에 대한 소개와 중보기도자의 자질에 대한 강의는 중보기도팀장인 현민정 목사님이 은혜롭게 잘 전하셔서 많은 분들에게 도전이 되었습니다. 작년 컨퍼런스를 통해 우리 교회의 중보기도 사역에 감동받아 사역을 시작한 교회들의 열매 맺는 간증도 함께 나누는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중보기도 사역은 교회 공동체와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영적 전쟁의 사역입니다. 저와 가정, 그리고 GMI 선교 사역을 위해 매일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의 중보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세계 선교의 사명을 힘 있게 감당하기 위해서는 중보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 중보기도에 더욱 힘쓰심으로 미국과 교회, 가정,



한기홍 목사님 사역일정

- GTD 208기: 6/8-6/11
- 그룹장 모임: 6/12
- 2차 GE 주말 수양회: 6/21
- 중보기도 용사의 밤 및 목사 부흥의 밤: 6/30

목사님의 사역 일정을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충만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자녀들, 그리고 GMI의 세계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큰 부흥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 주일 저녁부터는 GTD 208기(여자)를 인도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구원과 치유, 회복의 은혜가 충만한 사역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캄보디아

안진호 / 안지연 선교사

습하고 더운 날씨와 사역으로 지친 상태인 저희들은 충전하기 위하여 3월에 친정인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새벽부터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듣는 시간이 너무나 행복했고, 성도님들과 귀한 교제와 기도를 통해 저희들에게 가득 충전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다시 선교지로 돌아왔습니다. 미국을 방문하는 동안에 캄보디아는 계속되는 더운 날씨를 피하고자 뽀레끄라뽀은 은혜교회의 여자아이들 3명이 메콩강에서 수영하다가 익사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새벽 3시쯤 전

화를 받고 믿지 못할 일에 눈물로 새벽을 맞이하였고, 계속 기도하면서 그리움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저희에게 천사들과 함께 흰옷을 입고, 환희 웃는 세 아이들의 모습을 환상으로 보여주시며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저희는 아이들이 천국에 갔음을 확인하며 감사 기도와 함께 그리움의 눈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캄보디아에 돌아오자마자 아이들의 가정들을 방문하고 위로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환상을 전해주고, 아이들이 자신들의 가족들에게 자기와 같이 천국에서 만날 것을 소망할 것 같은 말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영접기도를 드렸습니다. 아이들이 천국에 간 지 한 달이 된 시점에 부활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시 많은 아이들과 성도님들이 함께 풍성한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저희 부부는 많은 노력을 하였고, 아이들이 다시 예배에 참석하여 감사하고 풍성한 부활절 예배를 올려드렸고, 모든 성도들과 아이들이 구원의 확신을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탄자니아

송규영 / 오효숙 선교사

에버그린 학교

2025 새 학기를 맞아 새로운 아이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이 아이들이 우리학교에서 복음을 듣고 자라갈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벅칩니다. 아이들 모두가 말씀 안에서 영의 양식을 먹고 믿음의 좋은 열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학교는 연말에 학생들이 방학을 하자마자, 새 학기 준비로 선생님들과 눈코 뜰 새 없이 바빠 집니다. 신입생 등록과 행정적인 일들, 학과 공부 준비, 환경정리까지 해야 할 일들이 많더보니 선생님들과 함께 계속 출근하여 일하다보면 방학은 훌쩍 지나가고 새학기가 시작하게 됩니다. 올해도 새학기가 시작하는가 싶더니, 1텀도 마치기 전 3월 1일부터 이슬람 라마단 금식기도가 시작되어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3학년까지 학교 등교를 하지 못하게 하고, 4학년에서 7학년까지는 9월에 국가시험이 있기 때문에 오전 수업만 하도록 교육부에서 지침을 내려놓고 만약 학교에서 이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문을 닫게 하겠다고 협박과 감시하는 교육부의 행태를 보면서, 학교에서까지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종교를 강요하는 것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교육부는 학과 시간에 이슬람 경전인 코란을 가르치도록 강요하는 반면, 성경은 가르치지 못하도록 협박하고 있어, 영적 전투의 한가운데 있음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영혼구원을 목표하는 우리는, 이에 굴하지 않고, 매일 아침 선생님들이 말씀 묵상과 기도로 준비하여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며 하루하루 치열한 영적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라마단 금식기도가 끝나고, 이슬람 EID 축제기간이라 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학교 전체가 2주간 방학기간인데, 이 기간을 이용하여 선생님들과 함께 신앙성경을 통독할 계

획입니다. 먼저 선생님들이 성령충만함을 체험하고 말씀을 잘 준비하여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바라옵기는 교육부에서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위협하고 있지만,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9년 동안, 반드시 복음을 듣고 또 들어서 주님을 구세주로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선생님들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성령충만함과 은혜를 주시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아학교

저희 노아학교는 킴니 지역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이들을 섬긴지 5년째가 되어 지역 주민들에게 이제는 학교에 대한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가난한 생활과 때문에 아이들의 유치원 교육을 생각도 못하고 있던 부모들이었지만, 동역자님들의 사랑에 힘입어서 노아학교에서 무료급식과 무료교육을 하게 되어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 줄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새로 들어온 신입생 아이들과 학부모들을 모시고 입학식을 하였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유치원 아이들의 가정을 돕기 위해서, 학생 유니폼과 가방, 연필, 학용품, 체육복을 무료로 나눠 주었습니다.

처음으로 학교에 들어와 가방을 매는 것도, 교복을 입는 것도 신기한 듯 공부시간에도 자기 가방을 만져보고 열어보면서 기쁨 가득 미소를 짓습니다. 아직 글씨를 완전히 배우지 못해서 가방에 쓰인 자기 이름을 모르지만 공부시간 만큼은 선생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배우는 모습이 대견합니다. 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복음으로 잘 성장하기를 원하며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사랑이 이슬람 학부모들과 동네 주민들에게 흘러가서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동역자님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풍성히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에버그린 학교 건축

에버그린 학교는 일반 집 건물을 렌트해서 운영하고 있어서, 교실로 사용하는 방들이 협소하여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학교 건축을 시작하여, 현재 1층 기초와 벽돌쌓기 및 기둥작업까지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도와주신 에벤에셀의 주님께 감사드리며, 함께 동역해

주시는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공사 계획은 슬라브 공사를 해야 되는데, 재정이 부족하여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고 주님께 공급해 주시기를 위해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난번 저희 학교를 방문하셨던 선교팀이 아프리카 날씨보다 더 후끈한 교실의 더위와 공부하는 교실이 너무 좁아서 책상 넓이를 반으로 줄이고, 그 책상 하나에 3~4명이 앉아 공부하는 모습을 직접 보시고 건축후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바램은 건축헌금이 순차적 공급되어 공사가 추진돼서 우리 아이들이 하루빨리 넓고 쾌적한 공간에서 공부하고, 이 학교를 통해서 꿈을 키워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복음이 생명수처럼 흘러 나오는 요새가 되고 산성이 되어 이 이슬람땅 잔지바르를 복음으로 덮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잔지바르 안디옥 성경대학

복음의 열정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제10기 성경대학 학생들은 2번째 텀을 마치고, 지금은 3번째 텀 (지역교회의 사역자훈련, CELL GROUPS) 과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학생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주중에 일을 해야 하는 어려움 속에서 성경 공부를 병행하며 열심히 배우고 있는데, 그들의 열정은 저희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향한 갈망을 잃지 않고, 헌신된 마음으로 학업에 임하고 있으며, 이 땅의 무슬림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전도의 열정이 뜨겁습니다. 그들의 간절한 기도와 노력은 반드시 주님의 귀한 열매로 맺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저희는 학생들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끝까지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또한 이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배우고, 헌신된 사역자로 세워져 세계 선교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브라질

한인승 / 한선희 선교사

주님의 은혜로 AFA를 잘 마쳤습니다. 이번 AFA는 중남미 선교대회와 연결이 됩니다. 이곳에서 두 목사님이 저희 내외와 중남미 선교대회를 참석했었습니다. 두 분이 그곳에서 많은 은혜를 받았고 많이 놀랐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더욱 열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계신 두 지역에서 상상 이상의 캔디와 팀멤버들이 참석했습니다. 최근 몇 년들여 가장 많은 캔디 53명과 70명의 팀멤버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비가 온다는 기상 예상이 있어 모든 팀멤버들과 2주간 돌아가며 한끼 금식을 하며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사역에는 아무 지장이 없도록 계속 깨어 기도하도록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많은 캔디들이 움직이며 사역을 했지만 시간 시간 은혜를 받으며 물 흐르듯이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팀멤버들의 열정과 캔디를 섬기는 모습에서 사역을 주관하는 저로서는 눈물겹도록 감사했습니다. 특히 세족식을 마치고 찬양 페스티벌에서는 그들이 받은 은혜를 몸으로 표현하며 하는 찬양은 대단했습니다. 이곳이 삼바의 나라가 맞습니다.

모든 시간을 마치고 간증 시간에는 많은 사람



들이 자신들이 AFA를 경험하며 변화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또한 많은 집회를 다녀 보았지만 이곳은 다르다고 하며 계속 팀멤버로 참석하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이번 중남미 선교대회에서 은혜를 받은 두 목사님들의 변화는 앞으로 이곳에 큰 역사를 이룰 것 같습니다. 이번 AFA를 인도하신 성령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E국

김OO / 양OO선교사

한 달 동안 정말 바쁜 하루 하루를 보내며 달려온 것 같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힘주시고 풍성한 은혜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A형제 소식을 나눕니다. 형제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지만, 그러지 못한거 같아 요즘 많이 신경이 쓰입니다. 몇 주 전에 A형제와 이프가 땀띠 알려지가 있어 몇번 약을 발라주고 땀띠가 안나게 어떻게 관리를 해야하는지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A형제가 자신이 신장 결석이 있다고 고백하고 수술비용이 없어 우리에게 CT촬영을 보여주었습니다. 남편이 이 형제를 위해 기도하고 침을 놔주고 결석을 위한 약을 구해서 주었습니다. 이제는 많이 아프지 않는지 저희 부부를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 부부에게 계속 저희 집에 오라 하였고 그 부부가 건강하고 마음도 더 열릴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 와중에 처음으로 해보는 선생이라는 직분

에 저희 부부는 많은 인내와 배움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A형제 아이들에게 뭐 하나라도 가르치기 위해 저희가 먼저 복습하고 교과 과정을 만들기 위해 많은 고민들을 하며 주 3일 2시간씩 영어 두번, 수학 한번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이야기 영상과 찬양을 동으로 마무리 하지만 저희 부부는 기도밖에 할 수가 없는 거 같습니다.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 가운데 그저 주님의 사랑이 전달되길 바램일 뿐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 독서공간을 만들고 싶은 마음이 생겨 책장을 구하고 있습니다. 먼 곳에서 이 소식을 들은 친구가 후원도 해주고 조금씩 이곳에서 영어책과 성경 이야기 책들을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며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더 심어지길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작은 기도에도 응답하십니다. 이곳에 와서 수단친구들을 만나고 싶다고 남편과 걸어다니며 이야기를 하였지만 이렇게 기도를 들어주실 줄 몰랐습니다. Intellect Nest Academy라는 수단난민 크리스찬 커뮤니티 학교의 선생님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 유아부터 고등학생까지 100명 안되지만 학교가 세워진 지 7개월 안되었고 선생님들이 월급을 아직 못받고 자원해서 운영되고 있는 귀한 학교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들과 만나게 하시고 이 학교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INA GRACE PROJECT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 학교에 보육실과 도서관 그리고 그외 학교 환경 보수와 리더들을 위한 훈련을 시작하려 합니다. 이 프로젝트에 주님께서 지혜주시고 모든 필요가 채워지고 학교가 자립하고 수단 커뮤니티에 힘이 되는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P국

정OO / 정OO 선교사

여기 P국 제 2도시 L도시는 여기저기 드론이 출몰하고 드론 포격과 화재가 간간히 일어나고 이곳에서 10-15킬로 내에 있는 L국경은 물

론이고 전 국경지역과 K지역에서는 매순간 치열한 총격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군 부대와 공함이 2-3킬로 떨어진 곳에 선교관이 있지만 감사하게도 아직까지는 별일 없었습니다. 이미 이 나라 전 지역의 공함은 폐쇄되었지만 간헐적으로 긴급 항공들은 운항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전쟁에 인도와 미국이 한편이라고 생각하고 약소한 크리스찬들을 비하하고 경멸하는 일들이 벌써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아프카니스탄처럼 선교가 정체되거나 아주 막히지 않게 기도해 주시고 이 곳 크리스찬들과 교회의 안전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멕시코

임한곤 / 이길선 선교사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디모데후서 4:2).

선교의 주체 되시는 하나님께서 일찍이 계획하신대로 멕시코의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사역을 할 수 있도록 5월을 선물로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고자 합니다. 날마다 멕시코의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 갈 수 있도록 마음 모아 기도하시고, 힘껏 선교헌금으로 동참해 주시는 목사님들과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 삼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멕시코에 보내셨고, 여러분들의 기도와 귀한 헌금으로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시기에 더 머물면서 사역할 수 있는 이유임에 감사드립니다.

신학교에서 바울서신들(13권 모두)을 가르치며 목상하는 중에 바울이 얼마나 동역자들인 디모데, 에라스도, 오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



라, 글라우디아 등을 사랑과 기도로 교회의 일꾼삼아 잘 길렀는가를 깊이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당시에 종의 신분이었던 사람들이 거듭나서 빛된 삶을 살면서 맡은 바 책임에 충성할 때에 주인들도 먼저 믿은 종들과 함께 신분이나, 빈부격차, 우월감 등을 중시하지 않고 함께 고린도 교회를 잘 세워 나갔음에 새삼 감동이 됩니다.

오늘날 멕시코의 교회 안에서도 신분과 빈부격차, 우월감과 카르텔 등의 문제를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아주 조금씩이나마 해결해 나가면서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져 가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상이란 멀리하고 싶을 정도로 끔찍한 괴물

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광명의 천사로 다가와서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고 꿈쩍 못하게 나를 묶어놓고 선입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성향이라 봅니다. 마음이 교회밖의 세상적인 가치관이나 잘못된 물질관, 명예욕 등에 묶이지 않도록 분투하며 쉬임 없이 살피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4월 달에도 멕시코의 개신교 교회들은 부활절을 전후해서 목회자들과 제직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림을 보면서 감사할 일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산타페교회에서 동역하는 오텔로 사미드(Otelo Samid) 목사는 밤 늦은 시간까지 전도를 하면서 온 지역사회에 주님의 부활 소식을 힘차게 전하였습니다.

저희들은 현지인 멕시코의 한 노회의 한 멤버로서 동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이 이들에게 임하심을 날마다 보면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어찌면 대책 없어 보이기도 하고 현실 불가능하게 보일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무조건 순종해 놓고 보면 미리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계획이 조금씩 성취되어가고 있는 도상에 편승 되었음에 감격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레바논

장영수 / 서영란 선교사

이집트 카이로에서 수단난민 가정교회 리더 14명을 대상으로 8주간 교회개척 훈련을 하였고, 결론은 실패하였습니다. 저에 미숙함이 큼니다. 그러나 성공보다 제가 더 큰 것을 가졌습니다. 실패를 계속 응원하여 주십시오

미국 Gateway Seminary와 협업하여 레바논에 2년 과정 신학교 캠퍼스를 작년에 열었으나 전쟁으로 개강을 못하다 올 2월에 개강하여 12명의 학생들과 오늘까지 수업을 하고, 6월 23일에 다시 개강을 합니다. 피로가 겹쳐 몸이 천근 만근입니다. 특별한 기억은 학생들에게 독방에서 8시간을 하나님과 지내고 리포트 제출을 요구하였는데 제가 부러울 정도로 하나님과 만나서 대화하고 많은 격려와 축복을 받은 이야기들로 수두룩합니다. 아랍 시리아, 쿠르드 시리아, 아랍 레바니스,

쿠르드 이라크인, 팔레스타인 시리아 5개의 민족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어가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우주적 교회를 목격하는 기쁨을 맛보고 있습니다.

6월 15일 최종시험을 통과하면 난민학교 베이트 캠퍼스에서 최초로 7명이 진학을 합니다. 4학년 2명, 6학년 2명, 8학년 3명입니다. 참 어렵게 끌고 온 학생들입니다. 아침에 데려오고, 데려다 주고, 점심 사 먹여가며 상전 모시듯 섬긴 아이들입니다. 선생님들이 노고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선교지에 선교하라고 보내주셨는데 열심을 다하지 못하며 다른 일에 분주하며 실패도 합니다. 무의미하게 지낸 날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선교지에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습니다. 교회 가면 습관처럼 예배하듯이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는 습관처럼 아침에 하나님을 찾고 깊숙하게 기도하는 시간들이 쌓이다 보니 하나님과 깊숙한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 이제 제가 선교가 무엇인지 조금 아는 것 같습니다.



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선교하고 계십니다.

기도제목

-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 12명 학생 모두 신학교를 무사히 졸업하여 12교회로 세워지기를
-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의 교회로 완성 되기를
- 아이들 등, 하교를 맡아 매일 운전 하시는 선생님들을 위하여
- 섬기시는 선생님들이 복음 안에서 담대하시기를

사사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

<1분단상 140-6월호>

- 김대규 장로

사사시대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부터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세워지기까지의 기간으로 계산방법에 따라 400년에서 340년 동안으로 보고 있다.

이 시대의 이스라엘은 신정체제로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12명의 사사들이 이스라엘 전체 또는 몇 지파를 대상으로 이끌어 갔다. 사사는 쇼페팀(히: שופט) 으로 “재판하는 사람들”을 말하나 이 시대에는 실제적인 군사, 정치, 사법의 지도자이었다.

이 시대를 구약시대의 실패기 또는 암흑기라고도 한다. 왜냐하면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각 지파들이 하나님을 잊고 이방인들과 결혼하여 그들에게 동화되고 이방신 바알과 아스다룻을 섬기며 음행까지 저지르고 배교를 하며 하나님 앞에서 악을 일삼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지도자들까지도 하나님 말씀을 놓은 시대이었다.

그래도 하나님은 사사들을 그때그때마다 세워 인도하게 하셨지만 잠정적인 평정으로 끝나고 전쟁과 악행이 반복되는 악순환으로 죄-이방 민족과의 전쟁-회개-사사에 의한 구원-망각-죄의 악순환이 되풀이 되었던 것이었다.

한마디로 신앙과 말씀을 잃고 각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방황하는 이스라엘이었다. 이스라엘이 그런 지경까지 갔다는 것은 도무지 믿겨지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죄악된 인간들을 인내와 구원으로 끝까지 지켜 주신 것이다. 왜 이리되었는지 그 원인을 살펴보면 우리에게 주고자하는 메시지를 알 수 있다.

첫째로 여호수아 이후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어 리더의 승계가 없었다는 것이다. 가나안에 들어가 12지파별로 영토를 분할하여 분권관리를 하였던 관계로 중앙 집권적인 힘을 상실한 것이 치명적이었다. 외부의 침입을 당해도 서

로 연합하여 대처치 못한 상황이었으니 이민족의 지배를 받는 등 시련을 당하였던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이리 볼 때 지도자다운 지도자가 있어야 질서와 체계가 세워지고 집중된 힘이 생기게 된다. 이는 점과 지도자는 항상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이끌어야 한다는 너무나 평범한 원리를 놓쳐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오늘날도 새삼 상기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하나님은 원하시는 완전한 정복은 현지에 동화되지 않기 위한 조치였는데 현지거민에게 속거나 현지 거민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한 것이 화근이었다. 불순종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고 현지거민들과 함께 살게 된 것이 그들이 눈의 가시가 되고 옆구리를 찔러 괴롭힘을 당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잊고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여 그들이 이방신들을 가지고 와 오히려 이방신들을 숭배하며 가나안 풍습에 동화되어 정체성을 잃고 있었던 것이었다.

이를 현대교회에 대비하면 현대교회들은 너무나 멀리 세속화 되었고 세상의 합리주의가 판을 치고 있다. 눈에 보이는 형식에 쫓겨 때로는 겉데기만 보이는 전시효과에 급급하고, 말씀 속에 있기보다는 겉에 있고, 순종보다는 인기에 연연하고, 모이기보다는 쉽게 게으름을 피우며 진정한 믿음을 진정한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을 찾기 힘든 현실은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곰곰이 따져보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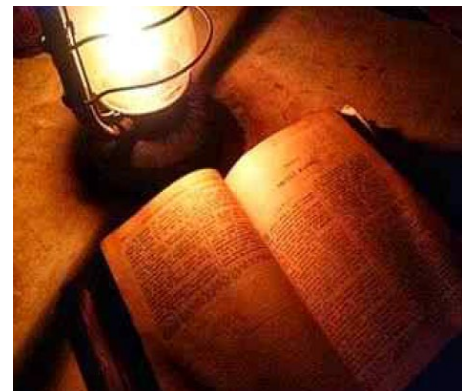
셋째 가나안 정복시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알지 못했고 성경도 읽지 않아 하나님을 잊을 정도의 위기였다는 점이다. 이 시대는 가나안을 정복한 세대가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배울 기회를 놓쳤으며, 지도자의 정규적인 율법낭독(면제년)도 없었고, 레위

인의 타락과 함께 개개인이 하나님말씀을 멀리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는 가장 핵심적인 영성의 결여가 이 시대를 병들게 한 것이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않고서는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없음을 깨닫게 한다. 세속화는 영, 혼, 육을 병들게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게 하는 tsunami와 같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함이 길인 것이다.

결론적으로 사사기를 통하여 오늘의 성도들과 그 공동체인 교회들에게 세속화를 멈추고 말씀으로 돌아가 참 생명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참된 교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가리키고 있다.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나 Spiritual Awakening Movement를 일으켜야한다는 시대적 요구를 깨우쳐 준다.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과 동행하여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짐하게 한다. 또한 참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 맛을 다하고 빛을 다하는 소명자의 본분에 충실해야 함을 각성시켜 준다.

이것이 사사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이다.



간증문

칠레-아르헨티나 단기 선교 보고

차윤석 안수집사 / G7

안녕하세요. 저는 그룹 7 차윤석 안수집사입니다. 이번 칠레와 아르헨티나 단기 선교 일정은 4월 10일부터 19일까지 9일동안 칠레 산티아고, 아르헨티나 멘도사, 코르도바,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목회자 컨퍼런스 및 코르도바 AFA #1 리유니온 사역을 안역식 목사님, 그룹 2 미첼 집사님, 그룹 7 안규범 안수집사님, 아르헨티나 스텔라 선교사님과 함께 참여했습니다.

이번 선교는 저에게 많은 기대와 설렘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동안 인카운터 사역과 해외 TD 사역으로만 선교를 다녔던 저에게는 처음 가보는 칠레와 아르헨티나를 방문하는 것은 설렘과 기대 그 자체였습니다. 또한, 이전에는 선교사 출신 선교사님들과 함께 단기 선교 사역했는데, 이번에는 (고) 김광신 목사님과 GMI 1세대 선교사님들께서 세운 현지 목회자들과 그의 제자들을 찾아뵙는 시간이어서 특별했습니다.

현지에 도착해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목회자님들을 보며, 한국에서 명절에 친척들을 방문할 때의 가족애를 느꼈습니다. GMI 영성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임을 새삼 깨달았고, 우리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에 현지 목회자님들이 우리를 가족같이 진심으로 반겨주시는구나를 느꼈습니다.

이번 선교는 바쁜 일정이나 많은 노동을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각 지역에서 현지 목회자님들의 찬양, 율동, 기도를 함께하며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을 하고 우리와 같은 율동을 하고 주여 삼창 하고 뜨겁게 기도를 하는 그들의 뜨거운 열정은 우리 선교



사님들이 얼마나 철저히 가르치고 훈련시켰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된 영적 가족의 소중함과 선교사님들의 헌신적인 수고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현지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회에 도착했을 때, GMI 민들레 로고와 함께 스페인어로 “은혜 교회”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보며, GMI 선교의 흔적이 그곳에 깊이 남아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현지 목사님께서 교회의 각 공간을 안내하며 설명해 주셨고, 예배당에 들어서는 순간, 강단에 나무로 새겨진 GMI 로고를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벽면에는 2008년 국제 총회장이셨던 (고) 김광신 목사님께서 직접 목사 안수를 주신 패가 걸려 있었고, 그곳에서 17년 동안 GMI의 영성을 이어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왔음을 보았습니다. 현지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더욱 붙들고자 몸부림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현지 목사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는 더욱 마음을 울렸습니다. 현지 성도들이 유튜브를 통해 은혜한인교회 소식들을 본다고 합니다. 많은 단기 선교팀들이 여러 지역을 방문하지만, 왜 자신들의 교회에는 오지 않는냐는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뭉클했고, 미안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찾아가야 할 지역이 더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니다. 우리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아직 가보지 않은 곳에도 관심을 가지고 찾아 뵙는 사역도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GMI 선교의 발자취가 깊이 남아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역사하고 계심을 확인할 수 있었고, 앞으로도 더 많은 지역을 방문하며 함께 예배하고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더욱 기도하고 준비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열악한 선교지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헌신하시는 스텔라 선교사님과 여러 현지 목회자님들의 모습을 보며, 그들이 감내하시는 어려움과 희생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선교는 저희들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선교의 본질은 단지 복음을 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성도들이 그들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지켜나가도록 돕는 데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선교를 통해 현지 목회자와 선교사님들이 선교의 열매를 잘 거둘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가 되어야 함과 단기선교팀으로서 우리는 기도하며 순교하는 마음으로 선교라는 영적 전쟁에 동참해야 한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끝으로, 저희들의 작은 헌신도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얼마나 귀하게 사용될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결단합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제목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탄자니아 송규영 / 오효숙 선교사

1. 멸망으로 달려가는 수백만의 불쌍한 무슬림 영혼들이 참 영생의 구원주이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해 주세요.
2. 제 10기 성경대학 8명 학생들이 말씀으로 무장되고 공부하는 동안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게 해 주세요.
3. 에버그린 3, 4, 7학년 정부시험이 9월에 있는데, 집중력과 지혜주셔서 좋은 성적을 얻게 해 주세요.
4. 에버그린학교 건축이 완공되어 속히 이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복음이 생명수처럼 흘러 나오는 산성과 같은 학교가 되게 해 주세요.
5. 요양원에 계신 어머님 영육에 강건함과,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해 주세요.
6. 에버그린과 노아학교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모두 구원 받고, 아이들이 꿈과 비전으로 성장하여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세요.
7. 오효숙 선교사 자가면역성 간염과 꼬리뼈 통증을 치료하여 주세요.
8. 우리 부부가 성령충만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깨어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해 주세요.



캄보디아 안진호 / 안지연 선교사

1. 교회 건축하는데 물질과 공사기간에 어려움이 없도록
2. 8월 대학시험을 앞둔 12학년 아이들을 통해 마을 사람들과 아이들이 도전받아 마을이 복음화가 되도록 (마을에서 대학을 간 아이들이 없습니다.)
3. 뽀글뽀글 은혜교회 아이들과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가 넘치도록
4. 현지인 전도사(세이하 준) 신대원 학비와 생활비 후원 연결
5. 순간 순간 주님의 인도하심과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사역하도록
6. 고온다습의 환경을 잘 이기고, 물이 안 좋은 환경 때문에 피부병과 신장에 돌이 생기지 않도록



멕시코 임한곤 / 이길선 선교사

1. 멕시코의 개신교 교회들의 목회자들과 제직들이 자치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하며, 자력으로 복음전파에 힘쓰도록 (존 네비우스 선교정책)
2. 까미노신학교와 신학교연합(벤엘신학교, 반석신학교, 열방 빛 신학교) 등에서 하는 강의사역에 사랑과 지혜, 영력과 성령충만을 덧입도록
3. 저희 내외가 건강하여 멕시코의 풍토병들(멕시코 독감, 홍역, 뎅게열, 고산병, 석회석 식수와 질병 의한)을 잘 이기며, 교통안전과 치안안전을 위해서
4. 5월에 졸업을 하는 신학생들이 목회지를 찾거나 개척교회를 시작할 수 있도록
5. 까미노신학교에 비치한 책들(약 2,100권)을 현지인 신학생들과 목회자들이 잘 활용하여 영력있는 일꾼들이 되도록



E국 김OO / 양OO 선교사

1. 주님이 만나게 해주신 귀한 영혼들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2. 모든 사역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더 심어지고 선포가 되길
3. Misr Lotus (Water Lily) Project 자료들이 잘 정리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4. 김OO 신학공부를 이어가기 위해 장학금 신청을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실 수 있도록
5. Grace Time QT 줌으로 하는 사역에 더 많은 일꾼들과 리더들이 세워질수 있도록

기도제목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베트남 강윤석 / 범수연 선교사

해안이집 사역 보고 드립니다. 7월 12일에 베트남 북부지역 30여개 교회가 참석해서 성경 암송 대회를 엽니다. 대회 방식은 각 교회에서 암송 대회를 열어 초등부 1명, 중고등부 1명을 선발한 다음 12일에 다함께 모여 암송 대회를 진행합니다. 1등 상금은 15만원 2명, 2등 상금은 10만원 2명, 3등 상금은 5만원 2명, 장려상 2만 5천원 10명입니다. 베트남 노동자 1달 월급이 4-50만원입니다. 15만원이면 학생들에게 꽤 큰 돈이라 북부 지역에만 1천명 이상



의 학생들이 암송에 도전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7월 14일에 남부지역에서도 성경 암송 대회가 열립니다. 첫번째 행사라 적은 규모로 대회를 진행합니다. 10년 안에 수십만 명이 암송대회에 도전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암송대회 상금, 대회 장소 사용료, 원거리 참가자 교통비 지원, 대회 당일 식사 및 간식비용 정도 들어갑니다. 1개 지역 대회에 150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2개 지역 300만원). 30여개 교회 1500명의 학생들이 암송에 도전한다고 가정하면 천원이면 1명의 학생에게 암송에 도전할 수 있게 하는 사역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이 아이들의 영혼에 사역하실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지원 부탁드립니다.

미국 남OO 선교사

남OO 선교사님께서 한국에서 소식 주셨습니다. 선교사님의 어머니께서 깨끗하게 회복되시길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선교팀의 기도로 어머니는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선망증세도 거의 없어지고 신장과 간 기능 그리고 헤모글로빈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어제는 담낭제거 수술을 무사히 마치셨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병원 생활로 기력이 없으셔서 혼자서 자신의 몸을 가눌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항생제 내성균이 발생을 해서 ICU에서도 격리실에 계십니다.

제가 도착하고 그 다음날부터 하루 30분의 짧은 면회 시간이지만 어머니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선교부 광고

1. 진행 중인 선교사역

• 멕시코 단기선교

이번주에 진행되는 단기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세요

2. 단기 선교 일정과 모집 안내

• Fresno 단기선교 (6/29-7/2)

T/M: 5/17부터 매주 토 VC119, 5pm
리더: 류영선 집사
문의: 최성근 집사 (858-204-2259)

• 쿠바 신학생/청소년 인카운터 (6/29-7/6)

S/L: 설성훈 목사
문의: 이병훈 집사 (714-353-1208)

• 알래스카 인카운터 #1기 (7/2-7/8)

S/L: 송중호 목사
리더: 어예늬 집사
총무: 크리스틴 리 집사 (714-742-7428)

• 그리스 이슬람 난민선교 VBS 및 노방전도 (7/2-7/9)

리더: 김태형 안수집사 (213-393-3215)

• 케냐 의료선교 (7/6-7/16)

리더: 김영수 장로 (714-417-2001)
총무: 한 조셉 안수집사 (714-213-5033)

• 엘살바도르 인카운터 #4 및 VBS (7/1-7/27)

S/L: 케니 박 목사
리더: 이재운 집사
총무: 한 조셉 안수집사 (714-213-5033)

• 필리핀 TD#1 (7/26-8/2)

S/L: 한기홍 목사
렉터: 이희경 안수집사
문의: 안규범 안수집사 (714-328-4820)
TM: 6/26, VC106

• 파라과이 AFA#12 & 신학교 3기 졸업식 & 치과사역 (7/28-8/7)

S/L: 안영식 목사
렉터: 노우종 안수집사
TM: 6/26, VC223

• 중미 4개국 연합 AFA 1기 (8/31-9/6)

S/L: 송중호 목사
렉터: 장준영 장로
문의: 로이김 집사 (213-999-1737)
OT: 06/25(수) 6:30pm, VC108

• 타지키스탄(두산베) TD (9/1-9/6)

S/L: 최윤섭 선교사/김영환 목사
문의: 213-500-5344

3. 의료선교국 주일 상담

매주 주일 10:00 - 11:15 AM
문의: 의료선교국

4. 이스라엘 회복과 부흥 및 주빌리 구국기도회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장소: WPC
문의: 현민정 목사 (714-732-2636)

5. 선교부 디보션 일정

매월 2, 4째주 주일 9:00 AM

6. 온라인 선교지 소식

WWW.YOUTUBE.COM/
@GMIMMISSION

WWW.FACEBOOK.COM/
GMIMMISSION

